

輸入自由化로 養鷄産業도

타격을 받는다

盧 永 翰

〈본 협회 편집국장〉

정부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등을 유도하고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도 5월 1일부터 시행될 수입자유화방침및 예시 품목을 발표하였다. 과거에는 1년에 2회 수출입기별공고를 하던것을 앞으로는 년중 수시로 단계적으로 수입자유화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현행 수입추천제나 수출입링크제등을 없앨 방침이라고 발표 하였다. 이번 수입이 자유화 되는 품목은 우선 순위를 기초원자재, 국내공급이 독과점 상태에 있는 품목중 일부와, 국제경쟁력이 충분하다고 간주되는 품목이 선정되었고 다행히도 농수산품은 중소기업제품, 특별법에 의해 제한된 품목과 함께 제외 되었다.

정부는 이번 수입자유화 품목과 함께 수입자유화 예시품목제를 실시 78년부터 82년까지 두단계로 나누어 수입자유화 예시 품목을 예시해주고 관계 국내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도록 유도하고 수입자유화가 되더라도 어느 품목이 과다하게 수

입되면 이를 감시 품목으로 분류하여 제약 조치를 가할 방침 이라고 하였다.

특히 정부는 과잉 보호되고 있는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주요 원자재나 부품의 적기확보를 위해 수입자유화가바람직하지만 농어민 보호, 중소기업의 보호, 자본기술면에서 취약한 국내산업의 보호 일반 국민의 외래품 선호 취향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상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같이 82년까지는 거의 93%이상이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되어 우리나라도 IMF 가입 국가가 되므로써 명실 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수입자유화란?

문자 그대로 수입자유화란 정부에서 지금까지 수입을 억제 금지하여 오던것을 서서히 수입을 자유화 하는것으로 정부나 정부가 위촉한 기관의 추천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로히 수입을 할 수있게 되는것을 말한다. 과거의 수출입 기별

공고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수입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고 수입제한방법도 직접적인 방법에서 관세제도를 활용한 간접제한 방법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77년 우리나라는 대망의 100억 \$ 수출목표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864\$이 되었고 외화 보유고도 43억 \$로 13억 \$이나 증가하였다.

78년은 수출 125억 \$, 1인당 국민소득은 1,060\$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급속히 우리경제는 발전하고 있고 이에 부수하여 통화팽창으로 인플레이와 물가를 자극하여 수입을 자유화 하므로서 물가문제를 해결하고 신보호주의 무역을 지향하고 우리나라 상품을 계속 수출하기 위해 수출한 만큼 수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였다.

수입자유화 정책과 축산업

정부는 앞으로 수입자유화 대상품목을 국내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고 경합이 없는 업종, 국제분업이익면에서 국민경제 전체에 비능률적인 업종, 국제경쟁력이 강한 품목등으로 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농업과 우리 축산업은 물론 2번째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당초 신문에 보도되기는 양고기등이 자유화 품목에 포함되는 듯 하였으나 다행히도 이번에는 제외되었다. 다만 생산기반이 약하고 값이 비싼 쇠고기는 금년에 2만여톤을 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쇠고기의 경우 농수산부나 관계기관 일반 농가에서 총력을 기울여도 현재의 여건으로는 호주나 뉴질랜드, 미국 등과 경쟁을 할 수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증산은 가능하다. 지금까지 쇠고기가 크게 부족하고 육류파동이 자주오는 것은 쇠고기값을 묶어 놓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생산을 기피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송아지값의 상승으로 암소의 도살율이 크게 떨어진 것은 좋은 예라 하겠다.

축산물과 물가

우리는 흔히 축산물 가격이 오를 때마다 EPB등 물가당국으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아왔다. 특히 양계산물인 계란 닭고기는 계절적으로 가격의 변동이 심해 닭고기의 경우 연간 평균가격 진폭은 15.6%이고 계란은 17.0%나 되고 있으며 연간 소비계절 생산조건등에 따라 크게 가격이 좌우되는 축산물 및 농산물을 물가 조사대상 품목에 넣어 다른 공산품가격이 올라도 일시적인 홍수출하로 이들 축산물가격이 하락하므로서 전체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수도 있다.

특히 물가와는 직접적 의미가 없는 사료가격과 같은 원자재까지 조사대상 품목에 들어가므로서 축산업발전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축산물의 계절적 가격변동을 고려치 않고 일시적인 가격상승때마다 수입이 거론되는 것을 축산인은 즐겨워하지 않는다.

축산물 수입과 생산기반의 혼란

현재 국내가격이 비싸다고하여 수입에 의하여 부족분을 충당한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이로 인해서 국내 축산업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생산을 기피하게 되면 더욱더 수입량만 증가하게 될 따름이다.

우리는 1973년 육류파동때 사료용옥수수 가격의 갑작스런 폭등으로 크게 당황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4%축소로 옥수수가격이 상승됨에 따라 벌써 우리업체는 몸살을 앓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몸살감기를 앓는다고 한다. 축산물을 수입에만 의존할 경우 항상 우리나라 축산보다는 미국이나 호주의 축산물생산 및 재고량과 그곳의 제반여건, 운반수단등의 눈치를 살피는 데 온 신경을 써야 한다. 사료용 옥수수 수입에도 미국의 작황과 소련, 중공등의 알수없

는 작황을 짐작하듯이 해야 할 것이다.

최근 평가절하와 옥수수 식부면적 국내 생산기반이 다 망가진후 국제축산물시세의 앙등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농민의 희생아래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여야 하겠다. 축산물의 경우 수지타산만 맞으면 자급은 가능하고 일시적으로 가격이오르는 것은 곧 하락한다는 것을 뜻한다.

농가소득의 측면에서 축산물 수입정책을 다루어 주기바란다. 전국민이 수입 쇠고기와 양고기의 가격과 맛이 몸에 밴후에는 이미 때가 너무 늦기때문이다

축산물 수입은(생산원자재는 제외) 안보 차원에서

대통령 각하께서 식량문제는 안보 차원에서 다루도록 지시하였고 장덕진 농수산부 장관은 축산도 광의의 식량으로 식량정책으로 다루겠다고 밝힌바 있다.

모든 공산품이 없이는 살아갈수 있지만 식량이 없이는 살수 없고 곧 굶어죽게 되기때문에 식량문제는 적극적인 육성지원과 자급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산유국이 아무리 \$가 많아도 경제적으로 자립국이라고 하지않으며 선진국이라고도 하지않는다 .

일본의 경우 닭고기의 경우는 거의 자급에 가까우며 쇠고기의 경우도 미국이나 호주의 압력에도 수입물량을 대량증가하지 않고 자국생산으로 충당하고 가격을 유지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고 있는것은 좋은예이다. 이런점에서 이번 정부의 육류가격의 안정대 설정을 환영하며 물가당국의 부족하면 수입하고 가격이오르면 수입한다는 생각보다 농수산부의 「농가의 생산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원칙에서 적정물량을 수입하고 여기에서 생기는 차익금은 생산기반 조성에 환원한다」는 발표를 믿고 오늘도 전체 양계인은 생산비의 절감과 품질개선 및 적정량의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라비아의 强精食

사막의 나라 (지금은 석유의 나라) 아라비아에는 옛부터 전해지고있는 이른바「催精의 食品42法」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오늘날의 營養學的 견지에서 볼때 그럴만한 근거가 있고 또한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들이다. 42가지나 되는 强精食 中에서 일부를 추려보면—

- ①듬뿍 기름씨가 도는 계란노른자위프라이에 벌꿀을 발라 먹는다.
- ②牛乳로 조리홍당무를 먹는다.
- ③버터로 구운 羊고기에 계란노른자위를 발라서 먹는다.
- ④잘게 썬 파를 노른자위에 찍어 먹는다
- ⑤아스파라거스를 끓는물에 데친후 기름으로 튀겨 계란노른자위와 함께 먹는다.
- ⑥작은 새를 통째로 구워 후춧가루를 뿌려 계란노른자위와함께 먹는다.
- ⑦黑麥酒를 少量의 꿀, 문어, 풋살구, 해삼등과함께 마신다.
- ⑧생강, 후추, 桂皮등을 常食한다.
- ⑨꿀과 除虫菊을 섞어서 먹는다.
- ⑩파의 껍질을 벗겨 노른자위와 기름에 튀긴다.
- ⑪벌꿀과 駱駝의 젖을 혼합한것을 常用한다.
- ⑫이집트콩을 벌꿀에섞어 먹는다.
- ⑬반숙한 노른자위에 후추를 뿌려먹는다.
- ⑭우유를 냄비에 부어넣고 高추가루를 뿌려 끓인후 그속에 노른자위 2~3개를 풀어서 마신다.
- ⑮뜨거운 포도주에 계란노른자위를 풀어넣어 땅콩을 씹으면서 마신다.

이상의 예에서 알수있는 아라비아强精食의 특징은 계란노른자위가 가장 빈도높은 材料라는 사실이다.